

일부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문 인 옥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교육과)

〈목 차〉

I. 서 론	IV. 결 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및 고찰	영문초록

I. 서 론

인간의 성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발달한다. 자기 자신을 자극하고 생화학적으로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 이미 태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Masters & Johnson, 1989) 유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생식, 노출, 육체적 작용, 자아에 대한 가치와 관련된 감정 등을 획득한다(Lefrancois, 1990).

모든 인간이 성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이 특별히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인생 전반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매우 극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오늘날 청소년기는 과거에 비하여 사회적, 심리적 성숙에 비해 급격한 신체 변화에 따라 성적 기능이 성숙해지고 생식 능력을 갖추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한편, 결혼 연령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 서양 문물이 급속히 유입되어 오랜 세월 우리의 정신문화를 지탱해 왔던 전통적인 윤리관을 붕괴시키기에 이르렀으며 가족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성문화는 성에 대해서 사회적 금기처럼 취급하여 온 전통적 성윤리관을 깨뜨리는 서구의 개방 풍조를 보이고 있어 무분별한 성접촉에 따라 점차 커다란 사회 문화로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입시 지옥에 시달렸던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곳에 와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포부나 학업에 대한 전망이나 구상 못지 않게 사랑일 것이다. 1997년도에 입학한 이화여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연구소의 설문지 조사를 보면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것]에 '폭넓은 인간관계'로 응답

한 학생이 25.3%로 가장 많았고 ‘이성교제’로 응답한 학생들은 단과대학에 따라 4.4%~9.9%로 평균적으로는 6.6%로서 5순위였지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특히 사랑에 한해서만은 그릇된 대중매체의 사랑론에 휩쓸려 성모방심리가 작용하여 대중매체가 성의식 및 태도 행위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시간을 매스미디어와 접촉을 하면서 시간을 소비한다. 특히 젊은 계층은 보다 쉽게 매스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 대중매체의 발달 및 접촉 기회의 확대는 그 이면에 ‘성의 해방시대’, ‘성 혁명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 풍토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될 성적 행동, 성행태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금기로 되어 있으며 위험하고 보호되지 않은 성행동에 관한 지식과 무지가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징이다. 보호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행위는 치명적인 AIDS를 포함한 성병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그들 자신 및 가족 나아가서 사회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근래에 와서 자주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로서 성폭력의 문제, 성비행 문제의 연소화 경향, 이성교제의 문란, 성범죄의 복잡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정교육상으로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이들의 성적인 고민에 대해 성상담이나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인 충동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적 불안과 갈등 속에서 올바른 성

의식과 성에 대한 태도를 가지지 못한 채 급변하는 성자유화 흐름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어떤 내용을 선택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사회 문화와 인간의 윤리가 변화되어 가므로 청소년의 가치관이 사회 변화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강대근, 1992). 다양한 성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날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성은 인간의 전 인격형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로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성의식을 바르게 갖게 하고 성행동을 합리적이고 인격적이며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이성교제 실태, 성태도 및 성행동, 혼전성 허용성, 성지식, 성교육 요구도 등을 조사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교재 개발에 필요한 성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대학(E여대, K공과대학, M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7년 9월 8일부터 9월 24일까지 수업시간에 설문지 510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K대학, M대학에서는 160부중 여대생 자료를 제외한 남자대학생 자료 109부, E

여대에서는 350부중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303부 등 총 412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방법은 설문조사로서 설문지의 기본 자료는 성교육 및 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 등을 기초로 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모두 6개 영역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8문항, 성행동에 관한 13문항, 이성교제 실태에 관한 7문항, 성교육 50문항(성교육 실태 10문항, 성교육 요구도 40문항), 성지식 49문항 등 총 1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도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이성교제 실태, 성행동, 성교육 실태는 χ^2 검정을 하였다. 성지식에서는 ANOVA와 DUNCAN의 사후검정, 성교육 요구도에서는 t검정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영역

연구대상자는 여자 303명, 남자 109명으로 총 412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소속 단과대학을 보면 의·약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일 많은 학생은 체대 87명(24.6%), 사범대 47명(11.9%), 미대 40명(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을 보면 1학년생은 7.0%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각 학년들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학생 자신의 학업성적에 관한 만족도는 절반

이상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대가족이 약 10%정도이고,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이 15.4%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는 80%가 대졸, 어머니는 60%가 대졸이었고, 가정 생활수준도 93%이상이 중정도이상으로 나타났다.

2. 성행동 영역

1) 성관련매체를 접해 본 경험

성관련매체를 접해 본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 여성잡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상물에서 남녀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표 1).

성인만화를 접해본 여성은 40.3%였으나 남성은 거의 대부분인 93.6%로 나타났으며 성인용 잡지를 접해본 여성은 45.1% 남성은 91.7%, 여성잡지의 경우 남녀 각각 75.2%, 80.2%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포르노 비디오의 경우 여성 26.1%, 남성 89.0%로, 컴퓨터용 포르노 CD의 경우 2.3%, 50.5%로, 포르노 잡지에서는 8.9%, 78%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인만화를 접해본 비율이 여성 79.9%, 남성 93.6%로 모두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성지식 습득원

성별로 본 성지식의 습득원은 다음 표 2와 같다.

남녀 모두 합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친구로부터 성지식을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책, 잡지, 대중매체(TV나 라디오 등)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들로부터 왜곡된 성지식을 얻음으로 써 오는 문제가 많으므로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표 1〉 남녀별 성관련매체 경험여부

N(%)

계	성인만화		성인용잡지		여성잡지		포르노 비디오		성인영화		컴퓨터용 포르노		포르노잡지	
	접해 있음	본적 없음	접해 있음	본적 없음	접해 있음	본적 없음	접해 있음	본적 없음	접해 있음	본적 없음	접해 있음	본적 없음	접해 있음	본적 없음
여자 303	12 (40.3)	181 (59.7)	82 (27.1)	221 (72.9)	243 (80.2)	60 (19.8)	79 (26.1)	224 (73.9)	242 (79.9)	61 (20.1)	7 (2.3)	296 (97.7)	27 (8.9)	276 (91.1)
남자 109	102 (93.6)	7 (6.4)	100 (91.7)	9 (8.3)	82 (75.2)	27 (24.8)	97 (89.0)	12 (11.0)	102 (93.6)	7 (6.4)	55 (50.5)	54 (49.5)	85 (78.0)	24 (22.2)
계 412	224 (54.4)	188 (45.6)	185 (44.9)	230 (55.1)	325 (78.9)	87 (21.1)	176 (42.7)	236 (57.3)	344 (83.5)	68 (16.5)	62 (15.0)	350 (85.0)	112 (27.2)	300 (72.8)
χ^2	91.84***		135.99***		1.19		129.69***		10.93***		145.37***		193.20***	

*** p<0.001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에서는 친구가 1위, 대중매체, 잡지나 책 순으로 나왔으나 남성에서는 1위가 잡지나 책이고 그 다음 순위가 친구, 대중매체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습득원은 3가지로 부모, 형제자매와 컴퓨터 PC통신이었는데 여성의 경우 8.6%, 9.2%가 각각 부모, 형제자매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반면에 남성은 각각 2.8%, 1.8%에 불과하였고 반대로 컴퓨터 PC통신에서는 남성이 12.8였으나 여성은 2.3%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P<.001).

기타에서는 학교수업이나 특강 등 외부 강의를 통해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지식 습득원(복수응답)

N(%)

계	부모	형제자매	선생님	친구	아는형, 언니	책, 잡지	대중매체	컴퓨터 PC통신	전화	기타										
여자 303	26 (8.6)	28 (9.2)	49 (16.2)	236 (77.9)	32 (10.6)	199 (65.7)	182 (60.1)	7 (2.3)	1 (0.3)	6 (2.0)										
남자 109	3 (2.8)	2 (1.8)	16 (14.7)	77 (70.6)	15 (13.8)	79 (72.5)	67 (61.5)	14 (12.8)	2 (1.8)	4 (3.7)										
계 412	29 (7.0)	30 (7.3)	65 (15.8)	313 (76.0)	47 (11.4)	278 (11.4)	249 (60.4)	21 (5.1)	3 (0.7)	10 (2.4)										
순위	7	6	4	1	5	2	3	8	10	9										
χ^2	4.16*		6.51*		2.90		2.31		0.81		1.69		0.07		18.39**		2.51		0.97	

*P<.05 **P<.01

3) 성관련 질문시 부모의 태도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인 변화나 성에 대해 부모님께 질문하였을 때의 부모님의 태도에 관한 문항에서 총 응답자 406명중 161명인 39.7%가 '물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대충만 설명하여 주셨다'가 31.5%, '더 크면 안다며 얼버무리셨다'에서는 10.8%로 응답하였다.

대충만 설명해 주시거나 더 크면 안다며 얼버무리실 경우 학생들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음란물이나 음란서적 등 음란매체에 은밀하게 접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능한 한 부모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에 답해 주어야 성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된다.

4) 부모님의 성개방정도

부모님의 성개방정도를 보면 아버지는 '보수적이다'가 총 응답자 402명중 254명으로 63.2%

를 나타냈고, 어머니가 '보수적이다'는 47.9%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더 개방적이었다.

5) 성고민

현재 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405명중 99명으로 24.4%였으며, 남녀별 고민유형을 표시한 것에는 여자 126명, 남자 58명의 총 184명으로 45.4%의 고민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과 같다(표 3).

청소년 상담실 활동 사례집(1997)을 보면 1996년도 1월 부터 12월말까지 1년동안의 청소년 상담사례 16,299건 중 16-25세 연령군의 상담사례 9,938건 중 58.7%(5,832건)가 성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나 성고민율이 본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고등학생 자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3〉 남녀별 고민유형(복수응답)

	N(%)							
	계	임신과 피임	이성친구문제	성충동, 성욕구	월경불순	자위행위	성폭행,강간	기타
여자	126	14(11.1)	89(70.6)	10(7.9)	27(21.4)	2(1.6)	3(2.4)	7(5.6)
남자	58	3(5.2)	28(48.3)	15(25.9)	0(0.0)	1(1.7)	0(0.0)	13(22.4)
계	184	17(9.2)	117(63.6)	25(13.6)	27(14.7)	3(1.6)	3(1.6)	20(10.9)
χ^2		1.67	8.58**	10.87***	14.57**	0.01	1.40	11.65**

** P<0.01 *** P<0.001

가장 큰 고민은 이성친구 문제로 남녀 각각 48.3%, 70.6%로 나타나 남녀별 유의한 차이(P<.01)를 보였으며 두 번째 순위의 고민은 여성에서는 월경불순으로, 남성에서는 성충동이나 성욕구로 나타나 남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1)〈표 3〉.

6) 성상담자

만약 성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상적으로 의논하고 싶은 성상담자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4와 같다.

〈표 4〉 이상적인 성상담자(복수응답)

		N(%)						
	계	선생님	부모	친구	형제.자매	아는형.언니	전문상담소	기타
여자	301	4 (1.3)	66 (21.9)	191 (63.6)	41 (13.6)	37 (12.3)	74 (24.6)	8 (2.7)
남자	109	4 (3.7)	10 (9.2)	78 (71.6)	10 (9.2)	18 (16.5)	16 (14.7)	6 (5.5)
계	410	8 (2.0)	76 (18.5)	269 (65.6)	51 (12.4)	55 (13.4)	90 (22.6)	14 (3.4)
순위		7	3	1	5	4	2	6
χ^2		2.29	8.62**	2.33	1.45	1.23	4.58*	1.97

*P<0.05 **p<0.01

이상적으로 의논하고 싶은 성상담자 1순위는 친구로서, 남녀별로 각각 71.6%, 63.5%의 응답율을 보였다. 그 다음 순으로 여성에서는 전문상담소(24.6%), 부모(21.9%)의 순으로 응답하였지만 남성에서는 아는 형(16.5%), 전문상담소

(14.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상담자로는 부모와 전문상담자(P<.05, P<.01)로, 남성에게는 부모와 전문상담소보다는 아는 형이 더 마음 편하게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성고민에 관한 실제 상담자(복수응답)

		N(%)							
	계	선생님	부모	친구	형제.자매	아는형.언니	전문상담원	기타	한적없다
여자	237	0	39(16.5)	150(63.3)	27(11.4)	16(6.8)	3(1.3)	3(1.3)	49(20.7)
남자	89	0	3(3.4)	52(58.4)	7(7.9)	18(20.2)	1(1.1)	2(2.3)	27(30.3)
계	326	0	42(12.9)	202(62.0)	34(10.4)	34(10.4)	4(1.2)	5(1.5)	76(23.3)
순위		8	3	1	4	3	7	6	2
χ^2		.	9.87**	0.65	0.86	12.57***	0.01	3.38	0.42

** P<0.01 *** p<0.001

성문제가 있을 때 실제 상담자 1순위는 친구로서 응답자의 62%를 나타내었고 2순위의 23.3%는 한적 없다로 김홍규(1996)의 연구결과 1순위 33%(친구)보다 2배가량 높았고, 2순위의 25.4%(혼자고민)보다 조금 낮았다.

성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적으로 의논하고 싶은 사람과 실제 고민 상담자사이에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는 선생님에게 전혀 상담하지 않았고, 22%가 전문상담원에게 상담하겠다고 언

답율이 1.2%로 떨어졌다(표 5). 18.5%의 이상적인 상담자로서의 부모는 실제로는 12.9%를 나타내었고, 성고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는 '상담한적 없다'가 23.3%로 나타나 소극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성문제를 걸로 내놓고 말하기에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우리 관습 때문으로 사료된다.

7) 성충동

성충동을 느껴 본 경험이 있을 경우 가장 많은 충동을 느끼게 했던 대상물에서 여성에서는 영화, 이성친구, 성인용 잡지, 만화책 순이었는데 남성에서는 영화, 야한 옷을 입은 사람, 성인용 잡지, 이성친구 순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박성정(1996)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3순위가 성인용 잡지 대신 TV나 TV광고이었고, 남성의 경우 본연구에서의 2위와 3위의 순

서가 바뀌어 성인용 잡지, 야한 옷을 입은 사람 순이었다.

8) 자위행위 경험

여성 303명중 43명인 14.2%가, 남성 109명중 98명인 89.9%가 자위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위행위 후의 심리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표 6> 자위행위 후의 심리상태(복수응답)

	N(순위)	심리상태							
		아무렇지도 않음	신체적 이상을까봐 두려움	도덕적 으로 죄의식	누가 알까봐 두려움	후회	매우 흥분	내 몸이 신기함	기타
여자	43	6(6)	6(6)	14(3)	15(1)	15(1)	11(5)	14(3)	1(8)
남자	98	33(2)	12(7)	19(4)	14(6)	39(1)	22(3)	15(5)	10(8)
계		39	18	33	29	54	33	29	11
χ^2		5.81*	0.11	3.17	8.22**	0.21	0.23	5.82*	2.49

* P<0.05 ** p<0.01

전체적으로는 '후회가 되었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38.6%) 남, 녀별 모두 1순위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응답한 응답 순위를 보면 여자에서는 '부모님이나 누가 알까봐 두려움(35.7%)'이 '후회가 되었다'와 동수였고 '도덕적으로 죄의식을 느꼈다'와 '내 몸이 신기하게 느껴졌다'가 동수로 그 다음 순위였다(각각 33.3%). 남자에서는 2순위로 '아무렇지도 않았다(33.7%)', 3순위의 '매우 흥분하였다(22.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 자위행위후의 심리상태 중 '아무렇지도 않았다', '누가 알까봐 두려웠다', '내 몸이 신기하게 느껴졌다'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P<.01). 미국의 10대들도 여전히 자위행위를 창피하게 생각

하고 있다(Cole & Strokes, 1985). 단지 31%의 10대가 죄의식없이 '아무렇지도 않았다'였고 많긴 적긴 간에 '죄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약 20%로 본 조사의 결과인 20.7%와 일치하였다.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청소년이 때때로 자위행위를 하고 그 중 여자는 약 50%가 하고 있다. 킨제이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들의 92%가 때때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성적인 극치감을 경험하였고, 여성들의 62%도 자위행위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96년 10월에 울산시 소재 10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성행동 조사(박성정, 1996)에서는 훨씬 낮아 54.3%의 남학생, 9.4%의 여학생이 자위행위를 경험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험률이

높았다.

9) 이성간의 신체접촉 경험

이성간의 신체접촉 경험비율을 보면<표 7>, 총 응답자 392명중 372명인 94.9%가 '손잡음'이었고 포옹(78.2%), 키스(66.8%), 가벼운 애무(50.8%) 순으로 성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진한 애무에서는 남녀 각각 37.5%, 15.9%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의 경험율을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성교경험에서는 남녀 각각 30.5%, 8.1%로 약 4배 정도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경험율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1993년도 이슈리서치의 서울대생들의 성의식 조사에서 남학생의 21.4%, 여학생의 9.9%가 성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여학생은 8.1%로 낮은 경험율을 보였으나 남학생은 서울대생보다 1.5배 경험율을 보였다. 임종권 외(1994)의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자 대학생 36.6%, 근로자인 경우 78.1%의 성교경험률을 나타내어 본 연구보다 높은 율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심포지움(1997)에서 나타난 서울대 학생들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보면 성별 구분없이 46.2%가 성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S여대 동아리모임에서 조사한 결과도 50%가 넘게 나와 실제 경험이 있어도 응답하지 않는 미응답자 수도 많을 것이다. 경험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미응답자수는 '손잡음'에서의 20명(4.9%), 진한 애무 65명(15.8%), 성교 71명(17.2%)으로 나타나 실제로는 이 조사결과보다 더 높은 경험율을 나타내리라 사료된다.

<표 7> 성별 이성간의 신체접촉 경험 유형(복수응답)

	손잡음	포옹	키스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교 경험	N(%)
여자	273(94.8)	218(78.1)	187(68.0)	133(50.0)	40(15.9)	20(8.1)	
남자	99(95.2)	79(78.2)	64(63.4)	53(53.0)	36(37.5)	29(30.5)	
계	372(94.9)	297(78.2)	251(66.8)	186(50.8)	76(21.9)	49(14.4)	
χ^2	0.23	0.00	0.72	0.26	18.88***	27.94***	

*** p<0.001

3. 이성교제 실태 영역

1) 이성친구 유무와 동기

이성친구 유무에서 여자는 300명중 164명인 54.7%로, 남자는 105명중 46명인 43.8%가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해 약 50%가 이성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를 사귀게 된 동기는 남녀 모두 합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

는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서가 미팅, 그리고 기타로서 학교 친구, 통신, 과외 클럽활동으로 나타나 많은 대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이성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성친구와의 관계수준

이성친구와의 관계수준별 신체접촉수준을 보면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표 8>. 단지 친구 사이일 경우 85%(34명)가 손잡는 수준인데

비해 좋아하는 사이일 경우 키스나 가벼운 애무가 56.1%(37명),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65.7%(44명)로 좀 더 증가하고 그 이상의 수준인 진한 애무나 성교도 26.9%(18명)를 나타냈으며 결혼

을 약속한 사이(34명)에서는 키스나 가벼운 애무가 61.8%(21명), 진한 애무나 성교는 26.5%(9명)로 나타났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8〉 이성친구와의 관계수준

						N(%)	
	손잡음	포옹	키스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교	계	남자	여자
친구 사이	34(61.8)	2(14.3)	4(3.8)	0(0.0)	40(19.3)	17(37.8)	23(14.2)
좋아하는 사이	15(27.3)	9(64.3)	37(34.9)	5(15.6)	66(31.9)	2(26.7)	54(33.3)
사랑하는 사이	3(5.5)	2(14.3)	44(41.5)	18(56.3)	67(32.4)	8(17.8)	59(36.4)
결혼 약속	3(5.5)	1(7.1)	21(19.8)	9(28.1)	34(16.4)	8(17.8)	26(16.0)
계	55(100.0)	14(100.0)	106(100.0)	32(100.0)	207(100.0)	45(100.0)	162(100.0)
χ^2	109.23***					14.47**	

** P<0.01 *** P<0.001

남녀별 이성친구와의 관계수준을 보면 여자의 경우 좋아하는 사이와 사랑하는 사이는 각각 33.3%, 36.4%로 나왔으나 남자의 경우 단지 친구관계에서 37.8%로 가장 높게 나오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17.8%로 낮게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표 9〉.

3) 성별 신체접촉수준

남녀별 이성친구와의 신체접촉수준을 보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손잡는 수준에서는 남자가 109명중 80명인 73.4%로 여자 303명중 179명인 59.1%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나 키스나 가벼운 애무에서는 여자가 31.0%(94명)로 남자의 11.0%(12명)보다 거의 3배 가량 높았다.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수준에서는 남자가 9.2%(10명)로 여자(7.6%)보다 높았다.

〈표 9〉 성별 신체접촉수준

특성						학업방해여부			계
	손잡음	포옹	키스 가벼운 애무	진한 애무 성교	계	지장있다	없다	도움된다	
여자	179 (69.1)	7 (50.0)	94 (88.7)	23 (69.7)	303 (73.5)	51 (31.7)	82 (50.9)	28 (17.4)	161 (77.8)
남자	80 (30.9)	7 (50.0)	12 (11.3)	10 (30.3)	109 (26.5)	10 (21.74)	25 (54.3)	11 (23.9)	46 (22.2)
계	259 (110.0)	14 (100.0)	106 (100.0)	33 (100.0)	412 (100.0)	61 (29.5)	107 (51.7)	39(18.8)	207 (100.0)
χ^2	19.33**					1.82			

** P<0.01

이성친구와 자주 만나는 장소는 커피숍이나 맥주집, 공원, 집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이성교제 인지 여부의 질문에서는 남녀 차이 없이 모두 약 83%의 높은 수준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의 대부분이 알고 계셨다.

이성교제가 학업에 방해가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지장이 있다는 응답율은 남녀 각각 21.7%, 31.7%로 나타났고 지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 모두 50%이상이고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응답자는 남녀 각각 23.9%, 17.4%로 나타나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임종권 외(1994)의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이나 직업만족도는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전한 이성교제는 오히려 학습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건전한 방향으로 이성교제를

하도록 성교육의 내용중 건전한 이성교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성지식

49개의 성지식 문항에서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점을 주어 총점 0-49점 사이의 분포를 가진다. 정답율은 남녀 각각 72.6%, 68.5%로서, 총 49점중 여자의 지식수준(35.55점)은 남자(33.58점)보다 높게 나타나 남녀별로 본 성지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경우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낮게 나타난 김은경(1992)의 연구나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박성정(1996)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으나 이문희(199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10〉 성별 성지식점수

특성	계	평균	표준편차	t
여자	302	35.55	4.35	3.95***
남자	106	33.58	4.60	

*P<0.001

〈표 11〉 단과대학별 성지식의 평균점수와 응답자수

N=394

	사회대	자연대	미대	사범대	가정대	음대	인문대	공대	체대	상경대	법대
N	14	27	40	47	14	22	24	76	87	26	17
\bar{x}	38.21	37.00	36.70	36.47	35.57	35.50	35.17	34.21	33.92	33.77	33.12

사회대 대학생이 38.21로 가장 성지식 점수가 높았고 법대가 33.12로 가장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미대, 사범대, 가정대, 음대, 인문대 내에서는 서로 별 차이가 없었고 이 그룹과 사회대, 자연대, 체대, 상경대, 법대의 각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1).

자연대, 미대, 사범대, 가정대, 음대, 인문대 내에서는 유의한 점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단과 대학별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를 보여, Duncan의 사후검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왔다(표 12).

〈표 12〉 단과대학별 성지식의 분산분석표

Source	Df	SS	MS	F	P
Model	10	724.56	72.46	3.99	.001
Error	383	6948.17	18.14		
Total	393	7672.73			

5. 성교육 영역

1) 학교성교육의 만족수준

〈표 13〉 학교성교육의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별로 만족 하지 못함	전혀 불만족	계
여자	1(0.3)	7(2.4)	92(31.6)	122(41.9)	69(23.7)	291(100.0)
남자	1(1.2)	5(6.0)	33(39.3)	18(21.4)	27(32.1)	84(100.0)
계	2(.5)	12(3.2)	125(33.3)	140(37.3)	96(25.6)	375(100.0)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에 대하여 여성에서는 65.5%(191명)가, 남성에서는 53.5%(45명)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3〉.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을 보면 총 응답자의 95.3%가 ‘꼭 필요하다’ 또는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에 응답하여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의 필

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14〉. 서울대 아동가정학과 심포지움(1997)에서 발표한 서울대생들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서 ‘대학에서의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83.5%가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표 14〉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

	꼭 필요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필요없다	기타
여자(301)	200(66.4)	90(29.9)	7(2.3)	3(1.0)	1(3.3)
남자(106)	70(66.0)	28(26.4)	2(1.9)	5(4.7)	1(0.9)
계 (407)	270(66.3)	118(29.0)	9(2.2)	8(2.0)	2(6.5)

2) 성교육 실시의 적절한 시기

적절한 성교육 실시시기에 관한 질문에서는 총 응답자의 86.7%가 초등학교 때나 그 이전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을 하여 사춘기에 갑자기 당면하는 2차 성징 등 신체적 변화에 대한 불안이나 초조감, 성충동 등에 대비할 필요를 느

끼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생님께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성 응답자 288명중 34명인 11.8%, 남성에서는 97명중 18명인 18.6%로 나타났다.

여성 34명중 가정과교사에게 질문을 한 경우가 11명(3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양호교사와 생물교사로 각각 7명씩(20.6%) 동일한 응답자수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18명중 생물교사에게는 8명으로(44.4%), 담임교사에게는 4명(22.2%), 체육교사에게는 3명(16.7%)씩 질문을 하였다는 응답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경우 교사에게 성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총 응답자 333명중 199명인 59.8%가 '선생님께 질문하기 어색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이미 다 알고 있어서'가 18.3%, '알고 싶지 않아서'가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표 15〉 선생님께 성에 관한 질문을 안한 이유

N(%)

	여	남	계
1. 야단맞을까봐	2(0.8)	1(1.3)	3(0.9)
2. 질문하기 어색함	159(62.6)	40(50.6)	199(59.8)
3. 이미 다 알고 있음	39(15.4)	22(27.8)	61(18.3)
4.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3(1.2)	1(1.3)	4(1.2)
5. 알고 싶지 않아서	36(14.2)	6(7.6)	42(12.6)
6. 기타	15(5.9)	9(11.4)	24(7.2)
계	254(100.0)	79(100.0)	333(100.0)

부모님에게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대생 수는 298명중 129명으로 43.3%이었고 남자 대학생수는 105명중 21명으로

20.0%로 나타나, 여성은 남성보다 선생님에게 성에 관한 질문을 덜 하였지만 부모님에게는 2배 이상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성 질문 내용

N(순위)

	이성교제	남녀생식기	생리현상 (월경,몽정)	임신과출산	자위행위	성행위	성병과 피임	순결문제	
여자	129	74(2)	9(6)	96(1)	56(3)	0(8)	19(5)	9(6)	44(4)
남자	21	10(1)	3(5)	6(2)	5(4)	0(7)	0(7)	1(6)	6(2)
계	150	84	12	102	61	0	19	10	50

부모님께 성에 관한 질문을 한적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 169명과 남성 84명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이유로는 '질문하기가 어색해서'로 58.5%(148명)가, '이미 다 알고 있어서'에 22.5%(57명), '알고 싶지 않아서'나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지 않으므로'가 13.4%로 응답하였다.

3) 성교육 요구도

어떠한 내용이 성교육으로 필요한 지를 알아보고 40개의 교육내용을 성교육 요구도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문항들을 크게 신체발달(10문항), 심리발달(6문항), 인간관계(8문항), 성윤리(8문항), 가정생활(8문항)로 묶었다. 40개의 교육내용이 각각 어느정도 필요한지에 따라 '전혀 필요없다' 1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의 5점까지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교육 요구

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성교육 요구도 문항 5개의 영역을 각각 성별로 보았을 때 모든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성교육 요구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와 매우 유의한 차를 보였다($P < .001$). 성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남녀별로 보았을 때 각각 신체발달의 3.38점, 4.48점이었으며 가정생활 영역에서 남녀 3.62점, 4.52점으로 나타났다<표 17>.

성교육 요구도 40문항 각각에 대해 성별과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았더니 그 중 10문항(남자의 생식기 구조와 기능, 이성에 대한 이해, 성역

할, 결혼, 남녀협력, 가족과 가정생활, 생명의 존엄성, 부모역할, 성도덕, 남녀의 심리발달, 성관계)에 대한 교육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30문항에서는 성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임종권의(1996)의 전국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내용별 요구도를 보면 이성교제, 성병/AIDS, 피임방법, 성충동, 자위행위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병에 관한 교육요구도는 낮았다.

<표 17> 성교육 요구도

	$\bar{x} \pm D.D.$		t
	남자	여자	
신체발달(문항1-8,10,38)	33.84±3.45	44.79±4.93	24.21***
심리발달(문항 9,15,16,36,39,40)	22.99±2.47	26.31±3.40	10.64***
인간관계(문항 17,19-22,25,29,35)	32.39±3.88	35.24±4.34	5.89***
성윤리(문항 14,18,23,24,26-27,31,34)	31.29±3.72	35.93±3.81	10.62***
가정생활(문항 11-13,28,30,32,33,37)	29.44±3.29	36.15±3.73	16.07***

IV. 결 론

서울시 소재 3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남 109명, 여 30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교육수준과 내용을 결정하고 성교육관련교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성에 관한 6개 영역을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는 여자 303명, 남자 109명 중 412명의 대학생으로 의, 약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생들로 1학년생 7.0% 나머지는 각 학년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은 15.4%로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2. 성행동

1) 성관련매체를 접한 경험은 여성잡지를 제외한 모든 성관련 대상물에서 성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성지식은 친구로부터 얻은 것이 많고 책, 잡지, 대중매체 순이었으며 여성에서는 친구, 대중매체, 잡지나 책, 남성에서는 잡지나 책이 1위이고 친구, 대중매체 순이었다.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성지식 습득원은 부모, 형제자매, PC통신이었다.

친구들로부터 왜곡된 성지식을 얻음으로써 오는 문제점이 많음으로 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성관련질문서 부모의 태도는 '물어 본 적

이 없다'(39.7%), '대충만 설명하여 주셨다'(31.5%)나 '더 크면 안다며 얼버무리셨다'(10.8%)로 응답하여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성관련매체를 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하고 있으며 성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게 한다.

4) 성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상적으로 의논하고 싶은 성상담 순위는 친구로서 남녀 각각 71.6%, 63.5%였고 그 다음 순으로는 여성에서는 전문상담소(24.6%), 부모(21.9%)의 순으로 응답하였지만 남성에서는 아는 형(16.5%), 전문상담소(14.7%)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민상담자는 이상적인 것과 차이를 보여 약 60%가 친구였고 '상담한 적 없다'도 23%가 넘었다.

5) 성고민유형을 보면 가장 큰 고민은 이성친구 문제로(남녀 48.3%, 70.6%) 남녀별로 보면 여성에서는 월경불순, 남성에서는 성충동이나 성욕구로 나타났다.

6) 성충동을 느껴 본 경우 성충동 대상으로 남녀 1위는 모두 영화이고, 여성에서는 이성친구, 성인용 잡지, 만화책 순이었는데 남성에서는 야한 옷을 입은 사람, 성인용 잡지, 이성친구 순으로 나타났다.

7) 자위행위 경험을 보면 여성의 14.2%, 남성의 89.9%로 나타났고 자위행위 후의 심리상태는 '후회가 되었다'에 38.6%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 '죄의식을 느꼈다'(20.7%), '누가 알까봐 두려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8) 이성간의 신체접촉 경험을 보면 약 95%가 손을 잡아 보았고, 포옹(78.2%), 키스(66.8%), 가벼운 애무(50.8%) 순이었으며, 성교경험에서는 남녀 각각 30.5%, 8.1%로 나왔다.

3. 이성교제실태

1) 약 50%가 이성친구가 있으며 사귀 동기는

친구소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팅, 통신, 동아리활동으로 나타나 자연스러운 이성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있다.

2) 이성친구와의 관계수준별 신체접촉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결혼과 관계없이 진한 애무나 성교 등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이성교제가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이상이고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은 응답율도 20%가 넘어 전전한 이성교제는 오히려 학습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성지식

성지식의 정답율은 남녀 각각 72.6%, 68.5%로서 여성의 성지식 점수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단과대학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회대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법대가 가장 낮은 점수분포를 나타냈다.

5. 성교육

1)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에 대하여 60%이상의 응답자가 불만을 나타냈으며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5.3%가 '꼭 필요하다',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에 응답하여 필요성이 높았다.

2) 적절한 성교육 실시시기는 대부분(86.7%)이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3) 성에 대한 질문을 선생님보다는 부모님께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40%미만) '질문하기가 어색해서'가 질문하지 않는 주 이유였다.

4) 필요한 성교육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교육 요구도 문항(40항)을 5개 영역(신체발달, 심리발달, 인간관계, 성윤리, 가정생활)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성교육요구도 점수가 높게 나와 유의한 차를 보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는 보다 바람직하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이성관의 형성 및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 피상적인 성교육이나 성병예방등의 부분적인 지식교육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인간관계 훈련으로서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커리큘럼을 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대근 : '청소년이란?' 성교육. 성상담-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연수교본(Ⅱ), 대한가족계획협회, 1992, pp. 29-52
2. 강병우 : 대학생의 성 및 AIDS에 관한 의식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1(1), 1994
3. 김경희 :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경북 상주지역 중·고 남학생을 대상으로, 대구효성카톨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4. 김홍규 : 성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조사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5. 대한가족협회 : 청소년 상담실 활동사례집, 제 13집, 대한가족계획협회, 1997
6. 문화체육부 : 청소년백서, 1994
7. 박성정 :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허용성, 성지식, 성역할특성, 성교육)에 관한, 울산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96
8. 박희정 외 : 미혼남녀의 성행동 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995
9.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제 1회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심포지움 "사랑한다, 졸업할 때까지."-서울대 학생들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의식과 태도, 1997
10. 성문화연구소 : 남자 고등학생의 성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청소년 성의식조사연구보고서-, 대한 가족계획협회, 1996
11. 이문희 :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성교육 실시의 타당성 과 성교육 지도방향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2. 이병우 : 현대 대중매체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3. 이인숙 : 일부 대학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4. 임경희 : 공단 생산직 미혼 여성 근로자의 성의식과 성문화,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5. 임종권 외 : 미혼 남성의 성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6. 정민자 외 : 미혼남녀의 성행동 실태 및 태도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5
17. 정은경 :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성에 대한 관심 지식 경험 및 성교육을 중심으로-, 성신 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8. 한영기 : 합리적 정서적 집단상담을 통한 여

- 고생의 성 태도의 변화, 한국교원대 석사학
위논문, 1994
19. 홍강의 : 청소년의 성문화와 성윤리관, 오늘의
청소년, 6월호, 1996
20. Coles, R., & Strokes, G. : Sex and the
American teenager, New York : Harper
& Row, 1985
21. De Gaston, & Jacqueline, F. : Under-
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Ado-
lescent Sexuality, Adolescence, 31(121),
1996, pp. 217-231
22. Lefrancois, G. R. : The Lifespan,
Belmont, CA : Wadsworth, 1990
23. Masters, W. H., Johnson, V. X., &
Kolodny, R. C. : Human Sexuality, 4th
ed., New York : Harper Collins, 1989
24. Sugahara, Motomi : Sexu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Age of AIDS,
Strategies for Preventive Education, 1995

<Abstract>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in Seoul

In Ok Moon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sexual activity among 412 college students in Seoul. An 127-item questionnaire is used in order to understand and consider alcircumstances involved in decisions about sexual activity, and to reflect to the course on healthy sexuali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Books/media' and 'friends' are the primary source of sexual knowledge.
2. Despite the increased number of sxeducation programs, peers apparently remain the major source of information and the counsellor of the sexual problems(71.6%).
3. About ninety percent of males and 14.2 percent of females masurbate. Although mastubation is anormal response to pleasurable bodily feelings, students feel 'unnatural', 'bad' or 'guilty'.
4. For some students, sexual intercourse is perceived as the natural outgrowth of love. More than thirty oercent of males and 8. 1 percent of females are engaged in inter-course.
5. Asking parents or teachers to be specific in talking about sex makes it uncomfortable to discuss sex.
6. Sex education should begin in the family and in school in early childhood and continue throughout life.
7. Sexual feelings and emotions are stirred up differently between male and female by sexual sensations.
8. Half of the intimate relationship with opposite sex shows a love relationship with sexual closeness and pleasure.

Unguided reading or peers remain the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opics like masurbation and sexual technique. Thus, school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more value-laden subjects (such as birth control, homosexuality, and sexual techniques). And inclusion of a peer education componebt that modified college students' perceived peer norms may be the intervention method of choice.

The prevention of health problems is far more desirable than treatment. The earlier the knowledge and skill to make healthful decisions are instilled, the greater the chance a healthful lifestyle will be adopted. School is the logical place in our society to provide the college students learning opportunities essential to developing the knowledge and skills to choose a healthful life course.